제1장. 중국 선진.한당 시기 유학 연구현황 분석

김동민(성균관대)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4년 한국유교문화 레포트>의 한 부분으로, 2014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및 한당>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먼저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모두 22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및 한당>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91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시기가 총71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양한시기가 12편, 한대 이후부터 수당시대까지가 8편이었다. 이 중에서 유학 사상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57편이다. 유학 이외에 도가와 도교 관련 논문, 기타 제자백가 등과 관련된 논문은 34편인데,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종교, 다섯째 교육, 여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① 공자: 11편, ② 맹자: 13편, ③ 순자: 4편, ④ 기타 인물: 6편으로 나타났다. 공자・맹자・순자로 대표되는 선진 유가가 28편으로 가장 많다. 선진 유가 중에서는 최근 맹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인물 중에서 선진에서 한대까지의 인물로는 陸賈(1편), 賈誼(1편), 王莽(1편), 揚雄(2편), 鄭玄(1편) 등이 있었다. 선진 이후의 유가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선진시대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육가와 가의, 양웅과 정현 등 한대를 대표하는 유가 인물에 대한 연구 성과에 눈에 띈다. 특히 양웅에 대한 연구 성과가 한대의 다른 사상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흥미롭다. 한대 이후로부터 송대 이전까지의 유가 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한 편도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지 않고, 전문 연구 인력도 많지 않아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정근	공자(孔子)와 『논어(論語)』의 자리	『東洋哲學硏究』 78	東洋哲學硏究會
2	김철운	孔子의 '앎'(知): 人道의 실현	『陽明學』 37	韓國陽明學會
3	지준호	공자(孔子)의 실천적 덕론(德論) -인(仁)과 예(禮)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권환	『논어』의 군자와 소인: 성장과 쇠퇴의 정향을 가진 과정적 인간상	『東洋哲學硏究』 78	東洋哲學硏究會
5	김영호	『論語』'五十學易章' 解釋의 檢討 - 특히 『正易』적 해석과 관련하여	『儒敎思想文化硏究』 57	韓國儒敎學會
6	지준호	공자의 도덕교육론 -인격과 정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0	한국철학사연구회
7	이현지, 박수호	공자의 교육적 인간상과 탈현대적 함의	『사회사상과 문화』 29	동양사회사상학회
8	김재경	人性敎育의 기초로서 孔子의 피드백 사례 연구	『儒敎思想文化硏究』 58	韓國儒敎學會
9	류근성	공자와 듀이의 인간론	『孔子學』 27	韓國孔子學會

10	황성규	孔子와 墨子 敎育思想 중의 人材觀 探索	『儒敎思想文化硏究』 55	韓國儒敎學會
11	박영진, 야마네카에	『논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비교 연구 -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출간된 책 제목과 서문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9	온지학회

공자 및 『논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은 총 11편이다. 첫 번째 유형은 仁이나 知, 君子와 小人 등과 같이 공자와 『논어』의 핵심 사상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①-⑤가 이 유형에 속하는 논문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공자와 『논어』에 보이는 도덕과 윤리를 현대의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이다. 현대 교육적 측면에서 공자의 교육이 지닌 가치를 다룬 논문도 보이고, 공자의 교육을 재해석하여 현실 교육에 직접 적용해본 시도도 보인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공자와 다른 인물을 비교함으로써 공자의 교육 사상이 지닌 의미와 그 학문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시도한 논문이 눈에 띈다. 서구의 교육철학을 대표하는 듀이와의 비교를 통해 동양적 교육이 지닌 의미를 밝힌 논문도 있고, 묵자와의 비교를 통해 공자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제시한 논문도 보인다. ⑥-⑩이 이 유형에 속하는 논문이다. 마지막 한 편의 논문은 『논어』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각,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상호 비교한 논문이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승현	맹자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	『孔子學』27	韓國孔子學會
2	정용환	맹자철학에서 유덕자의 윤리학적 함의	『東洋哲學硏究』 77	東洋哲學硏究會
3	류근성	맹자 인간학의 실용주의적 독해	『東洋哲學硏究』 77	東洋哲學硏究會
4	황호식	맹자의 윤리적 감정관과 그 인지주의적 성격	『東洋哲學』42	韓國東洋哲學會
5	이기원	『맹자』와 관용 -소통과 동락(同樂)을 통한 공감과 치유-	『동방학』3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6	이경무	맹자의 성선과 감성 지능	『哲學硏究』129	대한철학회
7	김종균	孟子의 思想과	『儒敎思想文化硏	韓國儒敎學

		물[水]의 이미지	究』56	會
8	김종균	『맹자』에 나타난 물(水)의 상징성 연구	『한국철학논집』40	한국철학사 연구회
9	황갑연	맹자 이단논쟁의 得과 實: 楊朱와 墨子思想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陽明學』37	韓國陽明學會
10	민홍석	孟子의 묵가(墨家) 비판	『유학연구』3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안유경	맹자와 주자 심성이론의 대비적 고찰	『東洋哲學』42	韓國東洋哲學會
12	지준호	맹자(孟子)의 도덕교육론 - 성선(性善)의 확충을 위한 교수작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42	한국철학사 연구회
13	김세정	공맹유학의 사회생태론적 해석	『陽明學』37	韓國陽明學會

맹자 및 『맹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은 총 13편이다. 첫 번째 유형은 맹자 철학의 윤리학적 의미와 가치, 性善論의 현대적 의미 등을 밝힌 논문이다. 『맹자』에 보이는 물(水)을 철학적으로 접근한 논문도 눈에 띈다. ①-⑧이 이 유형에 속하는 논문으로 맹자 관련 논문의 다수를 차지한다. 두 번째 유형은 맹자의 사상을 다른 사상과 비교한 형식의 논문이다. 당시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楊朱와 墨翟 등의 제자백가와 비교한 논문과 心性 이론의 측면에서 朱子와 비교한 논문이 보인다. ⑨-⑪이 이 유형에 속하는 논문이다. 그 외 맹자의 도덕교육을 현대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재해석한 논문이 있고, 현대의 사회생태론의 입장에서 공맹철학이라는 유가철학의 의미를 밝힌 논문도 보인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지연	순자(荀子) 윤리학의 이성주의적 특성	『동방학』3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	양순자	『순자(荀子)』의 “의(義)”의 윤리학적 함의 -분(分), 절(節), 순리(循理)의 관점에서	『孔子學』26	韓國孔子學會

순자 관련 인물은 공자와 맹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4편이다. 순자 관련 논

3	조원일	순자(荀子)의 교육사상(敎育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동서철학연구』 71	한국동서철학회
4	조원일 박복재	荀子의 經世思想 硏究	『中國學論叢』 41	한국중국문화학회

문에서는 순자의 윤리 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룬 두 편의 논문, 교육사상과 경세사상을 다룬 논문이 각각 한 편 보인다. 최근 순자 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학계의 상황과는 달리, 논문의 편수가 다소 적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이미 발표된 기존의 순자 연구 성과가 비교적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분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네 편의 논문 중에서 양순자의 논문만이 순자의 '義'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원일	육가(陸賈)의 역사사상(歷史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온지논총』 41	온지학회
2	조원일	가의(賈誼)의 예론(禮論) 연구(硏究)	『동서철학연구』 73	한국동서철학회
3	마사원	중국 경학(經學) 연구의 현재적 좌표(座標); 王莽『尙書』學硏究	『퇴계학과 유교문화』 5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4	조원일	揚雄의 政治思想硏究	『中國學論叢』 44	한국중국문화학회
5	조원일	양웅(揚雄)의 교육사상(敎育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退溪學論叢』 24	퇴계학부산연구원
6	박동인	정현(鄭玄)의 금(今)・고문(古文) 종합과 그 정치철학적 함의	『退溪學報』 136	퇴계학연구원

기타 인물에 관한 6편의 논문은 모두 한대의 사상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董仲舒와 함께 한대 초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陸賈와 賈誼인데, 이들에 대한 논문이 각각 1편씩 보인다. 그리고 한대 경학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왕망에 관한 연구도 한 편 보인다. 그 외에 후한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揚雄을 소개하는 논문이 두 편, 후한의 금고문 경학을 종합한 인물로 평가받는 鄭玄에 대한 논문도 한 편 보인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 경학사상 15편, ② 철학 29편, ③ 교육 8편, ④ 정치 및 경제 1편, ⑤ 기타 3편으로 파악되었다. 종교 관련 논문은 한 편도 보이지 않았다. 공자와 맹자, 순자 등 선진시대 철학자들의 논문이 많았기 때문에 주제별 분류에서도 철학 연구 분야가 대부분의 논문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五經을 중심으로 한 경전을 주제로 다룬 경학사상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공자의 교육에 대해 다루었지만, 맹자・순자・양웅 등에 대한 연구도 각각 1편씩 보인다. 정치 분야에서는 양웅의 정치사상을 통해 한대 유가의 정치사상이 지닌 특징을 밝힌 논문이 한 편 보인다. 기타 분야에서는 유가의 음악에 대한 연구와 유가의 이념적 즐거움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논문이 보인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노장 철학을 대표하는 한 인물을 통해 노장 철학과 공맹 철학의 관계를 다룬 독특한 논문이 눈에 띈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영동	『주역(周易)』의 大人 사상 연구	『孔子學』 26	韓國孔子學會
2	임채우	주역 음양 관계론의 정합성 문제: 陰陽對待와 扶陽抑陰의 논리적 상충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2	한국동서철학회
3	정병석	팔괘취상설(八卦取象說)과 주역(周易) 성격의 전환	『東洋哲學硏究』 79	東洋哲學硏究會
4	이향준	역학적 사유의 살아있는 기원	『東洋哲學』 41	韓國東洋哲學會
5	이동아	取象歸類의 易學的 관점에서 본 五行의 범주와 그 체계	『儒敎思想文化硏究』 56	韓國儒敎學會
6	김상섭	『帛書周易』「要」의 '夫子老而好易'장의 眞僞 문제: 공자와 『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哲學硏究』 129	대한철학회
7	고대혁	『書經』「虞書」의 내용체계와 유학사상적 의미	『東洋古典硏究』 57	동양고전학회
8	이택용	『서경』의 덕(德) 개념에 대한 고찰	『東洋古典硏究』 57	동양고전학회
9	최미라	『시경(詩經)』에 나타난 행복구가와 인간성 회복	『유학연구』 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정병섭	「檀弓」편 喪禮 記文의 類型에 대한 考察	『儒敎思想文化硏究』 56	韓國儒敎學會

11	신백훈	『禮記』의 '天下爲公' 解釋에 대한 考察	『儒敎思想文化硏究』56	韓國儒敎學會
12	김영호	『論語』'五十學易章' 解釋의 檢討 - 특히 『正易』적 해석과 관련하여	『儒敎思想文化硏究』57	韓國儒敎學會
13	진성수	유교경전에서 술[酒]의 상징체계 연구	『陽明學』37	韓國陽明學會
14	마사원	중국 경학(經學) 연구의 현재적 좌표(座標); 王莽『尙書』學硏究	『퇴계학과 유교문화』5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5	박동인	정현(鄭玄)의 금(今)・고문(古文) 종합과 그 정치철학적 함의	『退溪學報』136	퇴계학연구원

경학사상 연구는 五經을 중심으로 한 유교 경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야이다. 『주역』 관련 내용이 6편으로 가장 많았고, 『서경』 2편, 『시경』 1편, 『예기』 2편 등이다. 유교경전에 보이는 술[酒]의 상징체계에 대해 다룬 흥미로운 논문도 보인다. 먼저 『주역』 분야는 기존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반영하듯,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역』 속에 보이는 '大人'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논문에서부터 陰陽과 八卦, 五行 등 『주역』의 핵심 개념을 주제로 삼은 심도 있는 논문까지 주제의 영역이 비교적 다양하다. 출토문헌인 『백서주역』에 보이는 '공자가 늙어서 『주역』을 좋아했다'는 기록의 진위 문제를 다룬 논문도 보인다. 이향준의 「역학적 사유의 살아있는 기원」에서는 『주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들, 예를 들면, 天圓地方, 6爻의 명칭, 老陰과 老陽, 本卦에서 之卦로의 변화 및 「繫辭傳」의 '一陰一陽之謂道' 등의 해석에 내재되어 있는 은유의 관점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태동한 사유 양식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서경』과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은 동양고전학회에서 2014년에 「書經의 종합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한국의 학계에서 오경 중에서 『주역』 이외에 하나의 경전만으로 독립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경학 연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현재 학계에서 漢代 經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王莽의 尙書學과 鄭玄의 今古文 經學에 대한 연구는 매우 귀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신정근	공자(孔子)와 『논어(論語)』의 자리	『東洋哲學硏究』78	東洋哲學硏究會
2	김철운	孔子의 '앎'(知): 人道의 실현	『陽明學』37	韓國陽明學會

3	지준호	공자(孔子)의 실천적 덕론(德論) -인(仁)과 예(禮)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권환	『논어』의 군자와 소인: 성장과 쇠퇴의 정향을 가진 과정적 인간상	『東洋哲學硏究』 78	東洋哲學硏究會
5	박영진, 야마네카에	『논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비교 연구 -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출간된 책 제목과 서문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9	온지학회
6	박승현	맹자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	『孔子學』 27	韓國孔子學會
7	정용환	맹자철학에서 유덕자의 윤리학적 함의	『東洋哲學硏究』 77	東洋哲學硏究會
8	류근성	맹자 인간학의 실용주의적 독해	『東洋哲學硏究』 77	東洋哲學硏究會
9	황호식	맹자의 윤리적 감정관과 그 인지주의적 성격	『東洋哲學』 42	韓國東洋哲學會
10	이기원	『맹자』와 관용 -소통과 동락(同樂)을 통한 공감과 치유-	『동방학』 3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1	이경무	맹자의 성선과 감성 지능	『哲學硏究』 129	대한철학회
12	김종균	孟子의 思想과 물[水]의 이미지	『儒敎思想文化硏究』 56	韓國儒敎學會
13	김종균	『맹자』에 나타난 물(水)의 상징성 연구	『한국철학논집』40	한국철학사연구회
14	황갑연	맹자 이단논쟁의 得과 實: 楊朱와 墨子思想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陽明學』 37	韓國陽明學會
15	민홍석	孟子의 묵가(墨家) 비판	『유학연구』 3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안유경	맹자와 주자 심성이론의 대비적 고찰	『東洋哲學』 42	韓國東洋哲學會
17	김세정	공맹유학의 사회생태론적 해석	『陽明學』 37	韓國陽明學會
18	강지연	순자(荀子) 윤리학의 이성주의적 특성	『동방학』 3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	양순자	『순자(荀子)』의 “의(義)”의 윤리학적 함의 -분(分), 절(節), 순리(循理)의 관점에서	『孔子學』 26	韓國孔子學會

20	조원일, 박복재	荀子의 經世思想 硏究	『中國學論叢』 41	한국중국문화학회
21	김학권	현대사회에서의 유가윤리-선진유가를 중심으로	『孔子學』 26	한국공자학회
22	김진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선진유가를 중심으로-	『孔子學』 27	한국공자학회
23	이상호	儒敎의 憂患 意識에 관한 小考	『儒敎思想文化硏究』 57	韓國儒敎學會
24	이장희	선진유가와 덕 윤리	『退溪學報』 136	退溪學硏究院
25	황병기	고대 중국 윤리학의 성격과 양상 연구	『東洋哲學』 41	韓國東洋哲學會
26	이찬	도덕적 믿음, 감정, 그리고 도덕동기	『東洋哲學』 42	韓國東洋哲學會
27	신진식	『呂氏春秋』與儒家的關系	『유학연구』 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8	조원일	육가(陸賈)의 역사사상(歷史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온지논총』 41	온지학회
29	조원일	가의(賈誼)의 예론(禮論) 연구(硏究)	『동서철학연구』 73	한국동서철학회

철학 연구 분야는 전체 29편 중에서 26편이 선진시대의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자와 맹자, 순자의 사상에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밝힌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 선진 유가나 공맹철학과 같이 선진시대 유학사상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이장희의 「선진유가의 덕 윤리」는 서양적 개념의 덕 윤리를 고대 선진유학으로 끌어와서 상호 비교함으로써 현대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선진 유학의 윤리가 지닌 학술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가치를 찾고 있다. 선진 유학의 덕 윤리가 단지 과거 특정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선진 유학의 현대적 필요성과 현재적 가치를 찾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세정의 「공맹유학의 사회생태론적 해석」은 최근의 한국의 학계에서 시도하고 있는 학문융복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학문 분야인 생태론의 입장에서 공맹의 유학이 지닌 환경철학적 의미와 생태담론으로서의 가치를 재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학문융복합이라는 이 시대의 학문 방향과도 맞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맹의 유학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있다.

그 밖에도 한대의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陸賈와 賈誼의 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룬 조원일의 논문 두 편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한대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동중서를 거론하고, 그에 의해 유학이 한대의 주류 사상이자 국가 이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동중서의 이론도 한초 유학을 대표하는 육가와 가의의 이론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육가의 역사 사상과 가의의 예교 이론이 바로 한대 유학의 밑바탕을 형성한 대표적인 이론이며, 그것은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두 논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한대 유학이 지닌 독특한 시대적 특징과 그 사상의 이면에 깔려 있는 당시 지식인들의 의식에 대한 근원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지준호	공자의 도덕교육론 -인격과 정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0	한국철학사 연구회
2	이현지, 박수호	공자의 교육적 인간상과 탈현대적 함의	『사회사상과 문화』 29	동양사회사상학회
3	김재경	人性敎育의 기초로서 孔子의 피드백 사례 연구	『儒敎思想文化硏究』 58	韓國儒敎學會
4	류근성	공자와 듀이의 인간론	『孔子學』 27	韓國孔子學會
5	황성규	孔子와 墨子 敎育思想 중의 人材觀 探索	『儒敎思想文化硏究』55	韓國儒敎學會
6	지준호	맹자(孟子)의 도덕교육론 - 성선(性善)의 확충을 위한 교수작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2	한국철학사 연구회
7	조원일	순자(荀子)의 교육사상(敎育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동서철학연구』 71	한국동서철학회
8	조원일	양웅(揚雄)의 교육사상(敎育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退溪學論叢』 24	퇴계학부산연구원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는 전체 8편 중에서 공자의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맹자와 순자, 양웅의 교육 사상이 각각 한 편씩이다. 대부분의 논문이 공자와 맹자 등의 유학 속에 보이는 교육적인 측면을 현대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주목할 만한 논문은 김재경의 「人性敎育의 기초로서 孔子의 피드백 사례 연구」이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학

교육의 최대 화두 중의 하나인 인성교육을 공자의 교육 속에 찾으려는 시도이다. 현재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육 문제를 중심 주제로 잡고, 공자의 교육 방법을 통해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현대 사회에 활용 가능한 유학 교육의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드는 논문이다. 따라서 현재 동양철학 분야의 연구들이 함께 고민할 만한 화두를 던진 참신하고 신선한 주제라고 할 만하다.

한편 조원일의 「揚雄의 敎育思想에 관한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 양웅의 교육사상을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이다. 다만 논문의 내용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양웅의 철학은 한대라는 특수한 시대의 산물이고, 그의 교육사상 또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웅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 자체를 다루는 것과 함께, 전한의 董仲舒, 후한의 王充이나 鄭玄 등 한대 사상 내부에서 교육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 당시의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또 그것이 이른바 한대 사상, 또는 한대의 정치 및 사회 등에 끼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 논문이 가지는 가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양웅의 철학체계 내에서 교육사상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양웅의 철학체계 자체는 왜 연구되어야 하는지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양웅의 철학이 차지하는 사상사적 의미가 충분히 부각되어야만 그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교육 철학의 가치와 그 연구 필요성도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치 분야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원일	揚雄의 政治思想硏究	『中國學論叢』 44	한국중국문화학회

정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전한 말기의 사상가인 양웅의 정치사상을 다룬 논문 한 편만이 보인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한대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한의 동중서와 후한의 왕충을 주제로 삼았고, 그 외의 인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양웅은 전한시대의 사상을 종합한 인물로서 전한과 후한의 유학사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논문은 그의 정치사상 중에서도 성인의 통치와 예악 교화를 통한 治國을 주요 주제로 삼아서 그의 정치사상이 지닌 사상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명석	중국 고대유가의 음악을 통한 도덕감정 계발모형 연구	『東洋哲學』41	韓國東洋哲學會
2	강영	유가의 이념적 즐거움 연구 -안회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美學』78	한국미학회
3	박원재	'공맹'의 심성을 지닌 '노장'	『東洋哲學』42	韓國東洋哲學會

기타 연구 분야에는 유가의 음악과 유가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예술철학 방면의 주제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이 보인다. 유학을 예술이나 감성 등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유학이 지닌 예술이나 미학으로서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 외에 박원재의 「공맹의 심성을 지닌 노장」이라는 논문은 매우 독특한 소재를 논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노장철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노장철학의 진정한 의미와 공맹 유학과의 관계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국 학계의 대표적인 노장철학의 대가를 통해 노장철학의 정체성, 도가와 유가의 구별이 지니는 의미, 노장철학의 한계 등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소개한 논문들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역량과 각고의 노력을 집약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학계의 소중한 성과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향후 이 논문들이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탁월한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논문들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 논문 중에서 세 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그 논문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이택용의 「『서경』의 德 개념에 대한 고찰」이다. '德'이라는 개념은 동양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지만,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마도 동양철학의 용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함의를 지닌 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이 개념은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하늘, 특정 사물이나 국가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한두 가지로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대상을 사람만으로 한정하더라도 그 대상의 능력이나 재능, 사회적 지위나 계급적 위치, 성별이나 나이 등 수많은 요소에 따라 그 의미가 서로 다

르게 규정된다. 동양철학 분야에서 특정한 철학 개념의 의미와 그 전개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고, 또 그 개념들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덕이라는 개념을 연구의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천라이(陳來)와 먼로의 연구에서 제시한 고대 중국의 '덕'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서경』 속에 보이는 '덕'자의 분석을 통해 두 연구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덕'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학계에 큰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서경』의 '덕' 개념은 '특정 존재에 요구되는 이상적 역할을 해내는 특성', 즉 '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사물의 경우에는 '그것다움', 인간의 경우에는 '그의 지위다움'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논어』의 德治를 '正名'으로 해석하는 단초를 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덕' 개념을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일관된 해석을 도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다만 이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활용 가능한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경』 자체만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좀 더 논의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경』의 각 편들은 그 저작 시기에 대해 아직까지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필자의 말처럼 『서경』이 고대 문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덕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제화한 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대 문헌 속에 인용된 『서경』의 다양한 문장들을 함께 논의의 주제로 삼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면, 중국 고대의 덕 개념에 대한 좀 더 객관화된 정의를 도출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먼저 서론에서 필자는 덕의 초기 연구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천라이(陳來)와 먼로의 이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제시한 선행 연구들이 과연 중국 고대의 덕 개념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인된 연구 성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평자가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김형중의 두 편의 논문 - 「『논어』의 '덕' 개념 고찰」과 「포괄적 '덕' 개념의 형성 과정: 공・맹・순을 중심으로」 - 에 의하면, '덕'자의 어원이나 의미 분화, 서주 시기의 '덕' 개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여, 덕의 어원이나 서주시기의 덕 개념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준다면, 『서경』에 보이는 '덕' 개념이 지닌 특징이나 차별성 등 그것이 지닌 철학사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덕'이라는 개념을 철학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경』에 보이는 덕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학적 주제로 삼고 있는 유가의 전적들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四書에서도 『서경』의 '덕'이라는 개념을 인용하고 있고, 또 덕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첫 문장에서부

터 “在明明德”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서경』의 “康誥曰, 克明德.” / “帝典曰, 克明峻德.” / “大甲曰, 顧諟天之明命.”등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덕’자를 주자는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또는 “天之明命, 卽天之所以與我, 而我之所以爲德者也.”라고 풀이하여, ‘덕’의 의미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유적인 덕성의 의미로 해석했다. 한편 “君子, 先愼乎德, 有德, 此有人, 有人, 此有土, 有土, 此有財, 有財, 此有用.”(傳10장)이라는 문장에서의 덕은 필자의 해석처럼 ‘그의 지위다움’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중용』에서는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20장)라고 하여, 『대학』의 ‘명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大德, 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17장)나 “雖有其位, 苟無其德, 不敢作禮樂焉, 雖有其德, 苟無其位, 亦不敢作禮樂焉.”(28장)과 같이, ‘그의 지위다움’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논어』의 “君子, 懷德.”(里仁)에서의 ‘懷德’을 주자가 “謂存其固有之善.”이라고 풀이했고, “據於德”(述而)에서 ‘德’을 ‘行道而有得於心者也.’라고 풀이했다. 그리고 “天生德於予.”(述而)를 “孔子言天旣賦我以如是之德.”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그리고 “子曰, 吾未見好德, 如好色者也.”(子罕)와 “君子之德, 風, 小人之德, 草.”(顔淵)에서는 ‘덕’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맹자』에서는 “仁義禮智, 性之四德也.”라고 하거나 “以德行仁者, 王.”(公孫丑上)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철학적인 의미에서 ‘덕’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그것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몇 가지 정의를 내린 다음, 그것을 토대로 삼아 『서경』의 ‘덕’ 개념을 분석했다면, 『서경』의 덕 개념이 지닌 철학사적 위치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덕’이라는 개념은 서양철학에서도 중요한 철학 개념 중의 하나이며, 덕 윤리는 현재 윤리학 분야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서양철학에서는 ‘덕’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서의 윤리학이나 정치학에서의 ‘덕’ 개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중국 고대의 덕 개념과도 비교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어떤 삶이 좋은 삶, 즉 행복한 삶인가?”라는 것을 주요 주제로 삼으면서, 그 행복의 핵심 인자를 탁월성(德)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 탁월성(德)은 동양의 仁義라는 탁월성(德)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의 기원을 주로 습관으로부터 설명한다. 탁월성은 본성에 의해 주어진 것도 아니며, 본성에 반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습관은 본성이 허용한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본성을 탁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열등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의라는 탁월성을 놓고 보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완전히 부정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태어난다. 정의로운 활동 혹은 부정의한 활동의 반복을 통해 습관화될 때, 그것은 정의라는 탁월성으로 굳어지거나 혹은 부정의한 악덕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품성 상태가 곧 탁월성이며, 잘못 발휘하는 품성 상태가 부정의라는 악덕이다. 이에 비해 맹자의 仁義는 인간 본래의 착한 본성이며, 그것은

자연본성적인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다. 외부의 사물이나 환경에 의해 인간이 부정의를 행할 수는 있지만, 인간 자체의 본성을 따르고 그것을 확충한다면 그것이 곧 仁義라는 德, 즉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결국 맹자가 말한 인의라는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본성에 내재된 본래적인 덕이다. 습관에 의해 본성의 정의와 부정의가 정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접근법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덕'이라는 개념이 고대 동서양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동양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개념을 철학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서양철학에서 규정하는 '덕'이라는 개념과의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등을 간단하게나마 비교하여, 동양적인 덕 개념이 지닌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이 논문과 관련지어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은 『대학』에서 인용한 『상서』의 '明德'이나 '峻德'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필자가 정의한 '그의 지위다움'과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이 기존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덕'의 정의를 논리 전개의 토대로 삼을 것이 주장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논문은 황병기의 「고대 중국 윤리학의 성격과 양상 연구」이다. 도덕이나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최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주제는 매우 시사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다만 동서양 고대의 윤리학, 도덕의 기원 등에 관한 학술 연구 성과들이 비교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서론에서 옳음이나 이로움, 정의나 공리 등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각 개념들의 의미 부여가 다소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필자가 서론에서 "옳음의 추구는 사회의 유지와 규제를 위한 것이고, 이로움의 추구는 개인 또는 사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필자의 말처럼,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밝혀주지 않으면 이하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옳음의 추구가 사회의 유지와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옳음'은 '義' 또는 '정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옳음=의=정의가 단순히 사회의 유지와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입장은 이 글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맹자 등 고대 중국 학자들의 입장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맹자에 있어서 '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 이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인의'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의 유지와 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선천적인 善性에 기초한 개인적인 덕목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타인에게 좋은 것', 즉 폴리스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正義의 주요 내용은 곧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의로운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며 공정한 것이고, 부정의한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며 공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말한 義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필자는 옳음=義=정의라는 도식을 미리 설정한 다음,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만약 서론에서 의, 정의, 옳음, 공리, 이익 등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입장과 필자 본인이 근거로 삼은 이론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이 글은 논문이라기보다는 단지 필자의 사견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이 글은 중국의 윤리와 도덕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원과 한계에 대한 논리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구성되었다."라고 하고, "윤리학의 개념상에서 義와 利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가치를 지닌 개념이다. 결코 정의의 반대 개념이 이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윤리는 윤리학설이 태동한 때로부터 전혀 다른 개념을 반대 개념으로 설정하여 정의롭지 않으면 이롭거나, 이롭지 않으면 정의로운 학적 체계를 만들어 왔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필자의 말처럼 중국의 윤리에서는 의와 리를 반대 개념으로 다룬 것이 중국 고대 윤리이론이 지닌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윤리학의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필자가 말한 윤리학은 무엇이며, 또 현재 윤리학 분야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중국의 윤리 사상이 지닌 특징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잘못된 이론체계인가? 그와 관련된 기존 학술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이 개인적 사견인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새로운 주장인지가 전혀 확인인 되지 않는다. 중국 고대의 윤리사상이나 동서양 고대 윤리사상의 비교 등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문들에 비해 필자의 논문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가?

본론에서 필자는 "利와 義를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구별하는 의식은 공자와 맹자 모두에게 공통된다."라고 정의하고, 禮에 대해서는 "예란 바로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當爲의 규율인 것이다."라고 했다. 공자와 맹자의 입장에서 예는 내적인 자발성에 의해 利의 추구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義와 마찬가지로 인간 내면에 갖추고 있는 도덕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禮는 도덕, 인의와 같은 도덕적 마음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장치이며 조절기제이다. 예가 필요한 이유는 인의로서만 인류 사회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한계를 정함으로써 사회의 선악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禮는 도덕의 한계(limits of morality)를 극복하는 장치인 것이다. 특히나 공리주의적 윤리관을 논할 때는 더더욱 이 말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여, 인의와 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예는 단순히 외적인 규제의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사실 이것은 공자와 맹자가 말한 예의 의미가 아니라 순자 이후의 예에 관한 정의에 가깝다. 이처럼 禮라는 개념도 어떠한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필자는 본론에서 공자와 맹자, 묵자, 순자, 동중서 등의 義와 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순자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를 중시하고 이익을 멀리한 것에는 맹자와 일치한다고 하겠다.”라고 했고, 동중서에 대해서는 “그가 말한 공리와 도의는 곧 맹자적인 義利之分의 연장인 셈이다.”라고 하여, 중국 고대 유가의 전통에서는 義와 利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 구조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론의 끝부분에서 “이 이후 의와 리에 대한 견해는 서로를 대립적, 갈등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그 둘의 통일성, 상관성을 언급하는 주장으로 상반되게 전개된다.”라고 결론 맺고 있다. 필자는 서론에서 의와 리를 상반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윤리학적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이 글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본론의 내용들은 모두 중국 고대의 윤리학에서 의와 리를 상반되게 보는 주장과 그 이론적 구조를 밝히는 내용이다. 필자가 본론 끝부분에서 말한 ‘의와 리의 통일성, 상관성을 언급하는 주장’이 사실 필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본론 중간에서 묵자의 공리주의에 대해 소개만 하고 있을 뿐이다. 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고대의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않고, 비판 대상에 대한 분석에서 글이 끝나고 있다.

만약 서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토대로 논문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먼저 의와 리, 정의와 부정의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의와 리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윤리학의 이론을 먼저 제시하여 이 논문의 방법론으로 삼는다. 다음으로 중국 고대 공자-맹자-순자-동중서로 이어지는 유가 윤리학에서 의와 리를 대립적으로 보는 견해와 그 논리 구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방법론으로 삼은 서양의 윤리적 이론, 또는 묵자 등 동양의 공리주의적 윤리관의 이론을 토대로 유가 윤리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의와 리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면 비교적 매끄러운 논리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김종균의 「맹자에 나타난 물(水)의 상징성 연구」이다. 물(水)이라는 상징으로 맹자의 사상을 파악하려는 의도는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는 접근이다. 다만 제자백가들이 물이나 자연물을 비유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형태의 글쓰기인 것 같은데, 맹자가 든 비유를 ‘상징’이라는 철학적 용어로 이해할 만큼 특별한 것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도 서론, 본론 1,2장은 다시 한 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본론에서도 端, 仁, 根本, 性善, 道 등 주요 개념에 대해 맹자가 물을 비유로 든 것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징’이라는 이 글의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고, 또 기존의 연구 성과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서론과 2, 3장의 내용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맹자와 관련된 전문 학술 논문인데, 서론에서 맹자의 일생이나 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룰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 부분에는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맹자의 논법이 어떤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철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대별하여 그 독특성

을 밝혀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2,3장에서 상징과 물에 관한 논의도 서론으로 옮겨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필자가 맹자의 사상을 읽는 독법으로 상징이라는 방법론을 차용한 이유와 그 의미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형식이 좋을 듯하다. 2,3장이 논문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맹자와는 관련이 없는 상징과 물과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

필자는 맹자가 물을 비유하여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는 듯한데, 어떤 점에서 그것이 철학적 논문으로 다룰 만큼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四端 부분에서 “물이 확충해 나가면 결국은 바다가 되고, 불은 점점 타올라 성하면 끌 수 없는 것으로, 물과 불의 물질적인 세계를 사단의 확충으로 정신화하여 상징화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은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유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을 상징이라는 특별한 형식의 표현 방식으로 주목할 만큼 독특한 형식인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지 자신이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평가와 전망

선진시대부터 송대 이전까지의 연구 분야에서는 공자와 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선진 유가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현재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철학사를 살펴보면, 한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대에는 유가사상가라고 일컬을 만한 인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연구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의 깊이와 넓이를 확보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먼저 공자와 맹자, 순자에 대한 연구는 연구 성과가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 사상가의 구체적인 이론이나 철학 개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의 사상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대의 다양한 학문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과 연계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진의 유가사상이 지닌 현재성과 향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선진의 유학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된 것이 송대의 신유학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유학의 이론화와 체계화가 송대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선진 시대 이후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이나 현실적 활동 등이 유가의 이론 속에 포함됨으로써 점진적인 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사상이 선진에서 송대로 넘어가는 데 가교의 역할을 했던 주요한 사상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유가사상의 진정한 모습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평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과 주제별로 해당 분야의 논문을 분석해볼 결과, 선진시대의 유학 분야는 연구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논문의 편수도 많고, 논문의 내용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양한시대와 위진남북조, 수당시대 등 선진시대 이후부터 송대 이전까지의 시기는 여전히 관심과 연구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선진시대의 유학이나 송대 이후의 성리학 등으로 편중된 학계의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제자백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상가, 그리고 다양한 시대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이해가 절실한 실정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중국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상과 인물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담론의 근원이 되는 유교 경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경전 텍스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철학적 담론의 생산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학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관심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 사회는 학문 융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타 학문과의 교류와 학문적 접목은 필수적인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유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철학 분야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학문 융복합을 통해 유학의 현대적 가치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몇 가지 제언을 통해 향후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양한시대의 유학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양한시대는 사상사적으로 선진시대와 송명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 유학 또는 신학적인 유학으로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의 밖에 놓여 있다. 그러나 당시의 유학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현실과 이론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한대를 유교 국가로 만든 사실을 보면, 유학이 지향하는 학문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대로부터 형성된 氣 중심의 세계관은 후대 송명 시대 유학의 형이상학적 단초가 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양한시대의 육가·가의·동종서 등 대표적인 유가 사상가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양한시대에는 양웅·환담·왕충 등 수많은 비판철학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이다. 당시의 신학적 유교에 대항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와 행동을 강조했던 이들의 사상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대 이후 위진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를 거치면서도 현학이나 도교 등과 같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시대적 조류와 사상가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사상들은 중국철학의 저변을 이해하는 주요한 토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했던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심도 있는 중국철학 연구를 위한 학적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교 경전은 기본적으로 중국철학의 다양한 담론의 원천이 되기 기초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곧 중국철학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연구 풍토는 주로 四書 중심의 경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五經 영역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통해 중국철학의 광범위한 학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오경 중에서도 『역』 분야는 연구 인프라가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외 『시』와 『예기』, 『춘추』 등과 같이 동양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정치 등의 근저를 형성했던 기초 경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전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중국철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담론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의 현재적 재해석은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응용 학문이나 실용 학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학 또는 이들 학문들과의 교섭과 융합을 통해 현실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현대화되고 현재성을 가진 이론의 창출이 절실하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경영학이나 교육학, 사회학이나 문화학, 종교학 등 다양한 영역의 학문이 종합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학 또한 이러한 현실에 참여하여 현대인의 삶에 한 축을 형성하는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 현재 대학 교육에서는 융복합의 성격을 지닌 수업 과목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접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인 시각과 사고를 갖도록 유도하는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진정한 학문 융복합과 이를 통한 가치의 창출은 매우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이 지닌 전인교육적 이론을 기반으로 주변의 다양한 학문 영역들을 통합하는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향후 유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